

LH, 올해 광주·전남에 전세임대 1800가구 공급

전국 3만7580가구...상반기 공급 일정 앞당겨 일반·청년·신혼부부 등 유형별 모집 순차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광주·전남에 전세임대주택 1800여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제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적으로 3만7580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광주·전남은 182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물량은 수도권 2만1836가구(58.1%), 광역시 8707가구(23.2%), 기

타지방 7037가구(18.7%)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일반·고령자 1만3099가구(35%), 청년 1만285가구(27%), 신혼부부·신생아 6661가구(18%), 비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3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5가구(6%)다.

임대 기간과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가령, 일반 유형의 경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14회로 최장 30년간이다. 전세금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3000



구분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청년	신혼 신생아 I (신혼·신생아 I)	다자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비아파트)
임대기간	2년단위 14회 (최장 30년)	2년단위 4회 (최장 10년)	2년단위 9회, 최장 20년 (2년단위 4회, 최장 10년)	2년단위 9회 (최장 20년)	2년단위 3회 (최장 6년)
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외 7,000만원	12,000만원, 9,500만원	14,500만원(24,000만원)	15,500만원	20,000만원
임대 조건	전세금의 2~5%	1~2백만원	전세금의 5%(전세금의 20%)	전세금의 2%	전세금의 20%
임대료	연 1.2~2.2%	연 1.2~2.2%	연 1.2~2.2%	연 1.2~2.2%	연 1.2~2.2%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유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정한 자에게 우선공급. 기년 10년(최대 20년)
* 전세금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방 7000만원이다.
*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기존주택 전세보증금의 2~5%만 LH에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신, 지원금의 연 1.2~2.2%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임차료로 LH에 내야 한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했다.

지난달 개시된 청년 유형 1순위(7000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다자녀 유형 수시모집(4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LH는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며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000가구)의 51%에 달했다.

지난해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유형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시는 드림청년들의 원활한 직장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청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청년 451명, 238개 사업장서 일경험 시작

시, 7월까지 최대 5개월간 일경험 제공...채용 기업엔 특전

광주지역 청년 451명이 238개 사업장에서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을 시작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19기 드림청년은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시청에서 열린 ‘드림만남의 날’에 참여한 1900여명 가운데 상당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7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

월 25시간 또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고, 이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는다.

시는 일경험 이후 정규 채용으로 연계될 경우 해당 기업에 연 최대 2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일경험 기간 동안 전담 ‘드림 매니

저’를 배치해 청년과 사업장 간 소통을 지원하고, 조직 적응을 돕는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해 단순 근무를 넘어 종합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드림청년들의 원활한 직장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청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1일 차에는 ‘인입사원 조직 적응과 ‘강점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조직 내 역할을 설계하도록 했다. 2일 차에는 ‘시간 관리와 자기계발’ 교육을 통해 개인별 일경험 목표를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소비·재무관리’ 프로그램으로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3일 차에는 표현력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스피치 교육’과 함께 노동관계 기본 법령 및 현장 대응 방법을 다루는 ‘노동 교육’을 실시한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과장은 “경력적 선호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일경험은 청년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 22일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제16기 1~3학년 30명 내외...외국인 유학생 첫 선발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1~3학년생(휴학생 포함)이며, 이번 16기부터는 외국인 유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나이·성별·전공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 까지 활동하게 된다.

홍보대사들은 팀별 프로젝트 기획과 수행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밀착형 활동을 통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 공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콘텐츠 제작 등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수행한다.

오는 22일까지 광주은행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with@kjbk.com)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매일 소



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팀 및 개인에게는 별도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총식 브랜드전략부장은 “홍보대사 활동이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많은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세계김치연구소 ‘대사체실험실’, 안전관리 우수

위해미생물분석실 이어 2년 연속 쾌거...안전관리 역량 입증

세계김치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연구소 내 ‘대사체실험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았다고 4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모범적인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환경 시스템(12개 항목) △안전환경 활동 수준(11개 항목) △안전관리 관계자의 안전의식(4개 항목) 등 전 분야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필수 이행 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분야별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인증이 가능하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앞서 ‘위해미생물분석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대사체실험실’까지 추가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연구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대사체실험실은 김치·발효식품의 대사체 및 성분 분석을 통해 품질 특성과 발효지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핵심 연구공간이다. 또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 기반의 기능성·유해물질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세포 배양 기반 활성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밀 분석장비와 각종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연구 특성상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연구소는 인증 준비 과정에서 연구실 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잠재적 사고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연구장비를 재배치하고 보행로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실험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안전성과 연구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해 왔다.

장재훈 소장은 “연구성과의 출발점은 안전이며, 안전이 확보되어야 지속 가능한 연구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보해양조, 막걸리 ‘순희’ 15년만에 전면 리뉴얼

아스파탐 빼고 도수 6→5도...국산쌀 100% 하이볼 전성시대 ‘조선 RTD’ 콘셉트 부각

주류 전문 기업 보해양조가 4일 막걸리 브랜드 ‘순희’를 15년 만에 전면 리뉴얼해 선보였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막걸리의 정체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조선 RTD(Ready To Drink)’다. RTD란 별도의 조제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주류를 뜻한다.

보해양조는 최근 유행하는 캔 하이볼처럼 간편하게 즐기는 RTD 트렌드의 원조가 막걸리라는 해석으로 접근한다.

발효 과정을 거친 술을 사발에 ‘막걸리’ 바로 마시던 조상들의 막걸리 음용 방식이 현대 RTD의 본질인 간편함과 즉각성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보해양조는 이를 ‘조선 RTD’로 재정의해 막걸리의 전통성과 현대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했다.

제품의 내실도 대폭 강화했다

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제거하고, 알코올 도수를 기존 6도에서 5도로 낮춰 목 넘김은 더욱 가볍게 했다. 기존의 100% 국산쌀 쌀 사용 원칙을 고수해 밀 함유 제품 특유의 텁텁함이 없으며 깔끔한 뒷맛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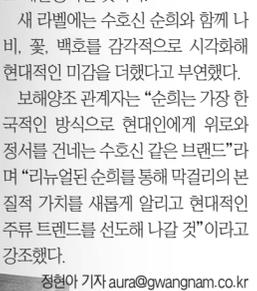
품질의 빼대인 파스타로 공명도 그 대로 유지했다. 발효가 절정에 달한 순간을 포착해 저온살균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며 실은 보관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브랜드 서사와 디자인에도 큰 변화를 줬다. ‘순희’라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이름에 현대인의 일상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의미를 새겨 넣어 넣었다. 전통 고사 문화에서 막걸리가 맥을 막는 매개체였다는 점에 착안해 순희를 스트레스와 불안을 달래주는 존재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새 리벨에는 수호신 순희와 함께 나비, 꽃, 백호를 감각적으로 시각화해 현대적인 미감을 더했다고 부연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순희는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현대인에게 위로와 정서를 건네는 수호신 같은 브랜드”라며 “리뉴얼된 순희를 통해 막걸리의 본질적 가치를 새롭게 알리고 현대적인 주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광공업 3개월 연속 호조 전년비 11.6% ↑...건설경기 ↓

광주지역 광공업 산업지표가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건설경기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자동차(24.6%), 담배(41.3%), 전자·통신(47.7%) 등은 증가했지만, 금속가공(-31.9%), 고무·플라스틱(-23.3%), 기계장비(-1.7%) 등에서 감소했다.

출하도 1년 전보다 6.1% 늘었는데, 자동차(14.4%), 전자·통신(41.5%), 1차 금속(37.2%)이 호조를 보였다.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24.0% 증가했다. 전기장비(103.4%)가 늘며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12.8%), 담배(32.8%) 등이 증가했다. 음료(-17.9%), 1차 금속(-2.0%), 금속가공(-7.5%) 등은 줄었다.

건설수주액은 24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2%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은 62.3% 감소, 기계·장치, 부동산 등 민간 부문에서 40.9% 감소했다.

임재용 기자